

# 호랑이해 호랑이 이야기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달아난 것이었지만, 호랑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다 알다시피 이러한 고사에서 비롯된 '호가호위'는 남의 세력을 빌어 위세를 부릴 때 쓰는 말이다. 예를 들자면 '윤핵관'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이란 말도 그런 경우일 것이다. 물론 윤핵관의 실체가 정치인인지 도사인지, 혹은 무당보다 낫다는 후보 부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 백수의 왕이 담배를 피웠다?

우리는 해가 났는데도 갑자기 비가 내릴 때 흔히 '호랑이 장가간다'라고 한다. 이때 잠깐 내리는 비는 '여우비'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설화다. 옛날 꿩이 많은 여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여우는 숲속의 왕인 호랑이와 결혼을 해서 그 권력을 차지하고자 했다. 그레 본격적으로 호랑이를 꼬시기 시작했고 결국 호랑이는 여우한테 넘어가게 된다. 한때 여우를 남몰래 짝사랑하며 지켜보던 구름이 호랑이와 여우의 결혼식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그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린다. 하지만 사랑했던 여우의 결혼식을 자신의 눈물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았던 구름은 애써 웃으며 조용히 비켜난다.

슬픈 이야기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빌어 주며 아픔을 참고 물러나가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특히 서로 험뜯고 폭로하고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 우리의 대선판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 같은 옛이야기를 시작할 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라는 표현을 쓴다. 일본에서는 같은 뜻으로 '무카시 무카시' (むかしむかし、昔昔)라 한다. 영어권에서는 '원스 어폰 어 타임' (Once Upon A Time)이나 '롱 롱 타임 어고' (long long time ago)를 쓸 것이다. 몹시 건조한 저들의 말에 비하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라는 표현은 또 얼마나 멋진가.

한때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온 것이 기껏해야 조선시대 중기일 텐데 그게 그리고도 옛날 옛적인가? 그렇다면 일단, '쌍팔년'이란 말을 생각해 보자. 8이 두 개 겹치는 단기 4288년, 서기로 하면 1955년이다. 그리 오래된 옛날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이렇듯 말하곤 했다. "내가 쌍팔년도에는 한기락 했지." 옛날에는 괜찮았다는 뜻이다. 지금으로부터 70년도 되지 않는 과거를 아주 오래전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렇다면 호랑이 담배 먹던 조선시대 중기는 그야말로 아주 옛날 옛적 아닌가.

여기서 다시 재미있는 설화 하나 들어보자. 옛날 할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사는 효자가 있었다. 어머니가 병이 들었는데 어떤 도사가 와서 개 100마리를 살라면 병이 낫는다고 했다. 한때 어떻게 개를 100마리나 잡는다는 말인가. 도사는 호랑이로 변신했다가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적을 주었다. 이윽고 효자가 100번째 개를 잡으러

나가기 위하여 호랑이로 변신했을 때였다.

우연히 이를 보게 된 아내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부적을 태워 없애 버렸다. 다시 사람으로 되돌아올 수 없게 된 호랑이는 산으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훗날 벼슬아치가 되어 호랑이를 잡으러 나온 어릴 적 친구를 만나게 된다. 호랑이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친구로부터 담배 한 대를 얻어 피운다. 이것이 바로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게 된 내력이다.

호랑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이제 대선 이야기가 넘어가 본다. 지난번 칼럼에서 나는 '거기서 거기, 짝을 사람이 없다'라고 썼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렀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적으로 '비호감 선거'라는 여론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일곱 시간 통화 녹취록'과 이재명 후보의 '형수 육설 녹취록'이 공개됐다. 거대 양당이 '진흙탕 싸움'을 벌인 것이다.

## 범피 안철수와 용피 이재명

이 때문에 어부지리(漁夫之利)로 덕을 본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다. 안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 가까이까지 치솟더니 최근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한동안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선호도에서는 안 후보가 다른 후보를 앞서기도 했다. 또한 '안일화' (안 후

보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거대 양당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다. 아마도 비교적 혐의가 없고 깨끗하다는 이미지 때문인 듯하다.

안 후보는 62년생으로 호랑이띠이며 윤 후보는 60년생으로 쥐띠다. 의외로(?) 나이가 어린 이 후보는 64년생으로 용띠다. 만약 호랑이띠인 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수만 있다면, 용띠인 이 후보와 함께 말 그대로 용호상박(龍虎相搏)의 형틀을 벌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일화라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에서는 1997년 김대중-김종필의 'DJ연합'과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 간 단일화 정도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이는 이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옛이야기 ही 뿐이다. 다만 단일화는 역대 대선 때마다 선거판을 뒤 흔들기는 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룬 후보가 승리를 쟁취했다.

과연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서로 손을 마주 잡을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보자. 좀처럼 상승 기류를 타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위기를 느끼고 막판에 안철수 후보 쪽에 '러브 콜'을 보내는 시나리오. 기적 같은 일이겠지만 만약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운룡풍호(雲龍風虎)의 기세가 될 수도 있겠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용과 바람을 타고 달리는 호랑이처럼.

# 언제 어디서든 감염 위험...잠시 멈춤 동참할 때

### 26일 0시 기준, 광주 396명·전남 286명 신규확진 '역대 최대' 전국 1만3012명 확진...코로나 2년 만에 하루 1만명 넘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일일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넘어가고 있다. 방역당국은 "언제, 어디서 감염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모임·외출 자제 등 일상생활 잠시 멈춤을 권고하고 나섰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396명, 전남 286명 등 682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주와 전남 모두 일일 확진자 기준 역대 최다 확진 기록이다. 광주·전남을 합해도 지난 19일 519명을 크게 웃돈다.

광주·전남지역은 일찌감치 오미크론 감염자가 80%를 넘어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으로 연쇄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에선 특히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동구 요양병원, 광산구 요양시설, 북구 요양병원에서 각각 44명, 3명,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387명, 154명, 82명에 이른다. 상무지구 한 대형건물의 입주 업체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현재까지 직원 26명이 확진

됐다.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초·중·고생도 전체 감염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오미크론 전파로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이 218명, 유증상 검사자가 116명에 달한다.

전남은 지역별로 목포 72명, 여수 51명, 순천 27명, 나주·진도 각 21명, 영암·무안 각 18명, 광양 12명, 화순 11명, 함평 9명, 영광 8명, 해남 5명, 강진·장성 각 3명, 신안·보성·완도 각 2명, 고흥 1명이 신규 확진됐다.

새해 들어 확산세가 그칠 줄 모르는 목포는 이날도 확진자 접촉자 31명, 자가격리 중 검사 양성자 15명, 유증상자 13명 등이 발생했다. 앞서 확진 판정받은 동료들에게서 선원 13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여수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선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자가격리자 등이 확진됐다. 나주에서는 이화원 관련 확진자, 광양에서는 금호타이어 물류센터 관련자 등이 확진됐다. 한편에서는 농업법원에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감염됐으며, 진도에서는 노래방 관련 감염자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이날 0시 이후 추가로 오후 2시까지 각각 252명과 44명이 신규 확진된 상태다.

전국적으로도 역대 최다인 신규 확진자 1만3012명이 쏟아졌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은 것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1일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뒤로는 56일 만이다.

/백진표 기자 lucky@·김형호 기자 khh@

## 오미크론 위중증, 델타 절반 이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3000명을 넘으면서 델타 변이 유행 시기의 2배 가까이로 늘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이 진행되면서 '감염 취약층'으로 좁히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위중증 환자 감소에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델타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자가 진단 키트' 사용법 안내 영상이 상영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신속항원 검사를 스스로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하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없음**  
(채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대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양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텔라블록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사채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소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양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사정인접  
다가구 사옥 다양도 부지 4,220㎡(1,276평) 매 9십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달달생 전원주택지 귀촌·휴양지 적할 때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홀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김명주 010-3454-2389  
대영공인중개사

## 23년 전통의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세계 최고 진단전문가를 추구하는 동반자를 모집합니다.

- 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 ▶ **공통 자격요건**
    - 학력: 대졸 이상(4년), 졸업예정자
  - ▶ **모집분야: 안전진단분야 0명**
  - ▶ **담당업무**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토목, 건축분야)
  - ▶ **지원자격**
    - 신입
    - 경력(2~4년)
    - 기타 필수 사항
      - 토목/ 건축 전공자
  - ▶ **우대사항**
    - 토목기사, 건축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 문서작성 우수자, CAD/ CAM 능숙자
- 2. 근무조건**
  - ▶ **근무형태**: 정규직 신입(수습기간-3개월)
  - ▶ **근무일**: 주 5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 **급**: 당사 보수 규정에 의함
  - ▶ **福利후생**: 4대보험, 경조금, 명절비, 교육·사내동호회지원 등
  - ▶ **근무지역**: 전남 장성군 장성읍 소재
- 3. 전형절차**
  -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 4. 접수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2022년 01월 26일(수) 09시~ 채용시 까지
  -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dawoeng@chol.net)
  -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 5. 문의 및 연락처**

061-395-2310 / 010-8687-3596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1길 15, 2층

※ **유의사항**※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DW (주)다우컨설팅**  
DAWOO Consultants Co., Ltd.

##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2. 01. 18.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2. 01. 21에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는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2. 03. 27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우덕에너지 주식회사**  
전라남도 장성군 나소산면5로 20  
청산인 이종희

---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합니다. 영구지 또는 관영인 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 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할 수 있습니다.

1. 분묘 소재지: 전남 장성군 성천면 영동리 산 113
2. 분묘의 개수: 2기
3. 개장사유: - 타인의 토지에 성립된 무연묘의 처리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묘: 영구지외 영묘의 개장  
- 무연묘: 공공기관 관리 후 공개 방법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전남 장성군 장영면 상동리 178-54 (야생묘지영원묘묘지)  
- 안치기간: 영안 후 10년
6. 공고기간: 2022년 1월 27일 ~ 2022년 4월 26일 (최소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공고인: 이종희  
- 신고제(업무대행): 장영면사무소 (010-3130-1740)  
- 문의: 장성군 장영면 중앙로 130-1
8. 신고시 구비서류: 영구지영묘를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식물이 관하여 낙착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적용합니다.  
2022년 1월 27일  
공고인: 이종희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 先州日報 |  |
|------|--|
| 지국안내 |  |
| 북구   | • 동 광 266-1920<br>• 문 흥 266-1960<br>• 북광주 525-3761<br>• 신 안 222-8171<br>• 양 산 571-7658<br>• 오 치 266-7601<br>• 용 봉 433-1503<br>• 우 산 433-1503 |
| 동구   | • 남 광 673-6836<br>• 동 명 222-9054<br>• 동 부 225-6001<br>• 중 양 222-9054<br>• 중 장 222-8171   |
| 남구   | • 남 광 673-6836<br>• 백 은 651-1833<br>• 봉 선 673-6836<br>• 순 화 675-6605<br>• 신 월 671-7276   |
| 서구   | • 광 천 382-5788<br>• 상 무 372-2352<br>• 서광주 369-1625<br>• 운 천 376-7153<br>• 지 평 376-6511<br>• 풍 안 603-0311<br>• 화 정 369-1625                   |
| 광산구  | • 운 남 952-1687<br>• 월 곡 959-1920<br>• 철 단 973-2900<br>• 하 남 955-0451<br>• 광 산 944-0444   |